

#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특성 및 상호관계<sup>1)</sup>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in Children

박 영 애\*  
Park, Young Yae  
최 영 희\*\*  
Choi, Young Hee  
박 인 전\*\*\*  
Park, In Jeon

## ABSTRACT

This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ships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EQ) and self-esteem had a sample of 1060 5th grade children. The rank order of four EQ factors from highest to lowest was "perception of emotion", "other-regulation and self-expression", "self-regulation and emotion utilization", and "empathy". Among self-esteem factors, "general self-worth" ha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overall self-esteem; "physical appearance" was most strongly correlated with "general self-worth". Relationships between EQ and self-esteem showed that higher EQ was associated with higher self-esteem. Among EQ factors, "other-regulation and self-expression"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behavioral conduct." The next strongest predictor of self-esteem among EQ factors was "self-regulation and utilization of emotion". Other self-esteem factors well predicted by EQ were "general self-worth", and "scholastic competence".

## Key Words

정서지능(EQ-Emotion Quotient)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역량감

1) 본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공동연구과제 중 협동연구과제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의 일부임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수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 I. 서론

오늘날의 교육은 병적이지 만큼 지식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도덕성 및 인성교육의 부재, 부모의 교육철학과 가치관의 혼미, 양육행동의 불일치 및 비 일관적인 태도,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의 실종, 지나친 지식위주의 조기교육 열풍 등의 문제는 급기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소양이나 생활공동체에 필요한 도덕 및 윤리의식 보다는 남을 앞서야 하고 경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하며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교육환경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과 학력주의 풍조는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심화되어 각종 과목의 경시대회 결과나 성적 위주로 아동의 우열을 평가하며, 이러한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부모나 교사는 아동들에게 더욱 더 인지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건전한 성격형성과 사회적 적응의 중심이 되는 자아존중감 이라든가 감성능력(정서지능)과 같은 정의적인 특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추구일 것이다. 즉 자신의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풍부한 정서적 소양을 지니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기르며, 바른 뜻을 세우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력

이 있고 책임감이 강한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바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요소로서, 아동은 그가 지니고 있는 자아상과 그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부터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 적응 및 건전한 인성 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Coopersmith, 1967; Harter, 1983)로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간주되어 왔다(Manning, 1989).

한편, 감성지능(EQ) 혹은 정서지능(EI)은 일반적인 지능(Intelligence)과는 변별되는 능력으로서 지나치게 지적인 능력의 향상에만 초점을 둔 교육과정의 대안적 목표로 등장한 개념이다. 최근 이러한 정서지능이 인간의 성공, 건강, 행복을 예측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어 감성능력 또는 EQ는 교육현장이나 매스컴에서 빈번히 언급되거나 다루어지는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Salovey와 Mayer(1990)가 정서지능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1995년 뉴욕 Time지(紙)의 뇌과학과 행동과학 분야의 전문 기고자인 Goleman이 "Emotional Intelligence"란 제목의 저서를 펴내어,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해 온 지능인 IQ가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IQ대신 감성능력(EQ)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Goleman은 "한 사람의 성공을 예측할 때 지능 검사나 학력평가에 의해 측정된 지적 능력보다는 '인성'이라는 말로 지칭된 '마음의 특성'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면서, IQ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조절, 동기 부여, 상대방의 기분 살피기, 시의적절하고 유쾌한 말투와 제스처 등과 같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감성능력(혹은 EQ)이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속에서 동지를 만들고 힘을 얻어 성공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똑똑하다', '영리하다'는 개념을 IQ로 설명해 왔지만 이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IQ가 낮으면서도 인생에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 그 이유가 '정서지능'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종래의 지능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도이자 일종의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마음은 이성과 감성의 발달에 의해 좌우되며, 이 두 요소는 상호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이성과 감성이 얼마나 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서지능의 핵심이며, 삶의 풍요와 만족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Mayer와 Salovey(1996)는 정서 지능은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 정서에 접근하고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지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정서지능 혹은 감성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감정이입 혹은 공감능력이 중요하며, 그러한 능력은 부모의 민감하고 적절한 감정이입적 반응을 통해 일찍부터 발달하게 된다고 본다.

이처럼 행복과 성공적 적응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아동의 정서지능은 자아존중감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구체적으로 이 둘 두 요소가 어떠한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자아존중감이 크게 세 가지 요인 즉 정서적, 인지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요인인 정서적 요인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주로 결정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변인간의 관련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두 변인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Rosenberg(1979)는 아동기의 경험으로부터 쌓인 자부심 또는 수치심에 관한 느낌이 자아존중감 형성의 기초가 됨을 주장하였으며, Pelham과 Swann(1989)은 긍정적인 정서상태와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의 정서적 결정요인이라고 하였다. Coopersmith(1967)는 자존감이 높은 아동은 매사에 활동적이고, 표현이 풍부하며 사회에서 성공적이라고 하였다. Rosenberg(1965)도 자존감이 일상생활에 많은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감과 인내력이 많으며, 자기표현과 대인관계능력이 높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들 두 변인이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제로 이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정서지능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이며, 반면에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자아존중감은 대체로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어오기는 했으나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과의 관계(김경연, 1987; 박영애, 1995; 손화희, 1989; 이미정, 1986; Coopersmith, 1967; Eaton, 1997))를 다룬 것이 많으며, 그 외에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나 언어

적 상호작용(김여가, 1996; 안경영, 1991; 이순재, 1994; 이인영, 1993) 등과의 관계를 보거나 대인관계 스트레스(한미라, 1996) 등과의 관계를 다룬 것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 다시 말해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발달 및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변인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개념특성 및 일반적 경향과 아울러 이 두 변인들간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특성과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은 상호 관련이 있는가?

3. 아동의 정서지능군과 자아존중감군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3-1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아동의 정서지능 요인은 무엇인가?

3-2 아동의 정서지능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요인은 무엇인가?

3-3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동의 정서지능의 전반적 기여 양상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수원, 대전, 대구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5학년 아동 1060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참여아동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216명, 수원이 257명, 대전이 285명 대구가 346명이었다.

###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2가지로서 아동의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질문지이다.

#### 1)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SPPC)을 번안한 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분석과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한 박영애(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일부 문항내용

의 표현을 약간 수정하였다.

원 척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의 자존감 하위영역에 대한 자아지각과 하나의 총체적 자아가치 평가를 위한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6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자아존중감의 5가지 하위영역인 학업능력(Scholastic Competence), 운동능력(Athletic Competence), 사회적 수용도(Social Acceptance), 신체적 용모(Physical Appearance), 행동·품행(Behavioral Conduct)과 전반적 자아가치감(Global Self-Worth)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이들의 합이 아니라 별도의 개념으로서 위의 5가지 하위영역들과 상관을 지니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자존감 척도의 점수체계는 4점 척도로서 각 문항마다 주어진 4개의 응답은 개인의 특징과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2개)과 부정적인 진술(2개)로 양분되어 있다. 즉 각 질문마다 왼편과 오른편에 두 종류의 나에 대한 다른 설명이 나오며, 그 중에서 자기 자신과 비슷한 쪽의 설명을 먼저 선

택한 후, 그 내용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다시 “나는 정말 그렇다”와 “나는 약간 그렇다” 중에서 한 곳에 표시를 하면 된다.

답안의 배열 방식은 일정한 패턴이 없이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쪽이 지면의 왼쪽과 오른쪽에 무선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긍정성이 높은 답안에서부터 “나는 정말 그렇다”에 4점, “나는 약간 그렇다”에 3점, 부정적인 답안 중 “나는 약간 그렇다”에 2점,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다”에 1점이 주어진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뢰도는 하위척도별로 .61에서 .83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 2)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는 정서지능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곽윤정, 1997; 문용린, 1997; 문용린, 곽윤정, 이강주, 1999; Salovey & Sluyter, 1997)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팀이 제작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총 80개로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자기 정서조절, 타인 정서조절, 자신의 정서인식, 타인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활용 등의 하위개념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문항들은 4명의 아동학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 및 5명의 석·박사과정 전공자들에 의해 내용타당도와 문항표현방식 등을 검토받고 수정·보완된 후 예비조사에 사용되었으며, 그 자료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63개 문항이 선정되어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정서지능 척도의 점수체계는 3점 척도로서 아동 자신이 평소에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문항내용에 대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그렇다’(3점), ‘가끔 그렇다’(2점, ‘그렇지 않다’(1점)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 자료의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 구성성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4 요인구조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4개 요인에 모두 5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4개 요인의 총설명 변량이 약 28%로서 문용린 등(1999)의 연구에서 밝혀진 5개 요인 즉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등의 설명변량인 36%에 비하면 다소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몇 가지 요인분석의 결과에서도 6 요인구조인 경우 34%, 5 요인구조인 경우 31%로 나타나 문용린 등(1999)의 연구와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서지능의 구성 요인은 제 1 요인이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 활용’(이후는 ‘자기조절 및 활용’으로 약칭함)(20문항), 제 2 요인이 ‘정서인식’(15문항), 제 3 요인이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이후는 ‘타인조절 및 표현’으로 약칭함)(11문항), 그리고 제 4 요인이 ‘감정이입’(9문항) 요인이다. 제 1 요인인 ‘자기조절 및 활용’ 요인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며, 아울러 부정적인 강한 감정이 생겼을 때 현재 진행중인 문제로부터 벗어나 기분을 전환하거나 새롭고 보다 중요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내용의 문항들을 포함한다. 특히 정서활용은 사고, 추리, 문제해결, 창의적 과제를 해결할 때 정서를 적극적,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문제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 2 요인인 ‘정서인식’ 요인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전체 정서 지능의 토대가 된다. 즉 정서지능 하위영역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역은 정확하게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 수준과 관련된다. 제 3 요인인 ‘타인조절 및 표현’ 요인은 타인의 감정이나 기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고 바꾸어 주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표현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 4 요인인 '감정이입' 요인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경험해 보는 것으로서 타인이 느낀 감정이나 기분을 마치 자신이 느낀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69에서 .8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은 예비조사(2000

년 2월)와 본 조사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2000년 5월 8일~5월 23일 까지 실시되었는데, 전국 4개 도시(서울, 수원, 대전 대구)를 대상으로 총 1113부가 배부되어 1104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불충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1060부의 설문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한글 SPSSWIN Program과 SAS Program(6.12 Version)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정준 상관분석 등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및 특성 및 개념 특성

#### 1)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 본 결과는 < 표 1 > 과 같다.

<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지능 요인들 중에서는 정서인식(2.48)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타인조절 및 표현(2.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지능 중 가장 일찍 발달하기 시작하며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 정서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인식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타인조절 및 표현인데, 이는 아동들이 적어도 상대방이 있을 때 그의 정서를 다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나 그것을 위한 자기 정서 표현의 조절을 어느정도 하고 있으며 이처럼 상대방을 살피는 정서지능이 다른 정서지능 하위영역들(자기조절, 감정이입)의 발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지능

< 표 1 >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정서지능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1.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2.18	.33	1. 학업능력	2.58	.61
2. 정서인식	2.48	.34	2. 사회적 수용도	2.71	.58
3.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2.41	.36	3. 운동능력	2.57	.67
4. 감정이입	2.13	.41	4. 신체-용모	2.66	.73
			5. 행동-품행	2.61	.51
			6. 전반적 자아가치감	3.01	.62
정서지능 전체	2.30	.28	자아존중감 전체	2.69	.42

< 표 2 >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 영역간의 상호 상관관계

하위영역	1	2	3	4	전체
1.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1.00				
2. 정서인식	.40***	1.00			
3.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59***	.47***	1.00		
4. 감정이입	.45***	.33***	.47***	1.00	
정서지능 전체	.85***	.72***	.81***	.66***	1.00

\*\*\*P< .001

전체의 평균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두 요인들과는 달리 자기조절 및 활용(2.18)은 크게 떨어지고, 그 중에서도 감정이입(2.1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 중에는 전반적 자아가치감(3.01)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수용도(2.71), 신체적 용모(2.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운동능력(2.57)과 학업능력(2.58)의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 전체의 평균은 2.69로서 대상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개념특성

아동의 정서지능 변인의 구성개념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변인의 구성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의 하위영역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간의 자체 상호 상관분석을 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표 3 참조).

정서지능 척도의 하위 요인들간의 상호 상관관계는 < 표 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 하위 요인들간의 상호 상관이 비교적 높게, 그리고 모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능력들(1과 3)간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그 두가지 역량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지능 전체는 자기조절 및 활용(.85)과 타인조절 및 표현(.81)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인식이나 감정이입과도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였다. 정서인식과 감정이입(2와 4)간의 상관이 그 중에서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정서인식이 감정이입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자기조절 및 활

< 표 3 >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 영역간의 상호 상관관계

하위영역	1	2	3	4	5	6	전체
1. 학업능력	1.00						
2. 사회적 수용도	.36***	1.00					
3. 운동능력	.23***	.42***	1.00				
4. 신체-용모	.36***	.36***	.30***	1.00			
5. 행동-품행	.42***	.29***	.12***	.31***	1.00		
6. 전반적 자아가치감	.46***	.43***	.27***	.63***	.45***	1.00	
자아존중감 전체	.68***	.69***	.59***	.75***	.60***	.79***	1.00

\*\*\*P< .001

&lt; 표 4 &gt;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간의 상호 상관관계

하위영역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정서인식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지능 전체
1. 학업능력	.24***	.26***	.23***	.14***	.29***
2. 사회적 수용도	.18***	.22***	.28***	.07*	.25***
3. 운동능력	.09**	.17**	.12***	.01	.11**
4. 신체-용모	.19***	.11**	.10**	.02	.16***
5. 행동-품행	.32***	.24***	.30***	.14***	.34***
6. 전반적 자아가치감	.24***	.22***	.26***	.13***	.29***
자아존중감 전체	.30***	.28***	.31***	.12***	.35***

\*P&lt; .05 \*\*P&lt; .01 \*\*\*P&lt; .001

용이나 타인조절 및 표현과의 관계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 영역들간의 상호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용모와 전반적 자아 가치감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63) 나타났으며,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운동능력을 제외한 다른 하위 영역의 자존감 요인들과 고르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 행동품행과 학업능력(.42), 운동능력과 사회적 수용도(.42)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고, 학업능력과 사회적 수용도(.36), 신체·용모와 사회적 수용도(.36)등이 그 다음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자존감 전체와 전반적 자아가치감간의 상관관계는 .79로서 다른 것에 비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자아존중감을 대변할 만한 대표성이 어느정도 있는 요인임을 말해주며, 박영애(1995)의 자료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 2.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간의 상호 상관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간

다중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 표 4 >와 같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요인들과 정서지능요인들 간에는 비록 크게 높은 상관계수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유의수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상관관계가 아주 높지는 않으나 매우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두 변인간에 의미있는 상관이 있음을 말해준다. 정서지능 전체와 자아존중감 전체의 상관계수는 .35로 나타났다.

아동이 보인 정서인식능력은 학업능력(.26)과 행동품행능력(.24) 및 사회적 수용도(.22)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타인조절 및 표현과 자기조절 및 활용은 둘다 행동·품행(각각 .30과 .32)과는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그 다음을 보면 타인조절 및 표현은 사회적 수용도(.28)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인데 비해 자기조절 및 활용은 학업능력(.24)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신의 정서조절 및 활용능력보다는 타인에 대한 표현과 관심 및 배려가 사회적 수용도와는 더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감정이입은 행동·품행(.14) 및 학업능력(.14)과 낮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수용도와는 훨씬 더 낮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아동의 감정이입능력이 그의 사회적 수용도와 별로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타인조절 및 표현(.26)과 가장 상관이 높았고 그 다음이 자기조절 및 활용(.24)이었으며 감정이입(.13)과는 가장 낮았고, 사회적 수용도는 역시 타인조절 및 표현(.28)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그 다음은 자기조절이 아닌 정서인식(.22)으로 나왔다. 신체·용모는 정서지능 중 다른 요인들보다는 자기조절 및 활용 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19)을 보였다.

### 3. 아동의 정서지능군과 자아존중감군과의 관계

아동의 정서지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아동의 정서지능은 무엇이고, 아동의 정서지능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은 무엇이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동의 정서지능의 전반적 기여 양상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정서지능군을 예측변수군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군을 평가변수군으로 하여 정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 표 8 참조).

먼저 <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 정준 변량함수( $P < .001$ )와 제 2 정준 변량함수( $P < .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두 개의 정준 변량 함수에 대해 < 표 6 >에서는 각각 정준가중치

(canonical weight)와 정준적재치(canonical loading), 정준적재치의 자승값( $L^2$ ), 각 변인의  $L^2$  값이 그 변인이 속한 변인군의 전체  $L^2$ 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 \sum L^2$ 을 제시하였다.

두 정준함수 중 먼저 제 1 정준 변량함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지능의 정준 가중치에서 가장 높은 예측변수는 타인조절 및 표현(.518)으로 군내 변량의 약 35.3%를 설명하였고, 자기조절 및 활용(.430)은 30.1% 정도로 설명되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정준 가중치에서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행동·품행(.548)으로 군내 변량의 29.1%를 설명하였으며, 사회적 수용도(.315)는 18.3%로 설명되었다. 이것은 아동의 정서지능 중에서도 타인조절 및 표현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이며, 자아존중감 중에서도 특히 행동·품행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정준 변량 함수는 첫 번째 도출된 정준 변량함수쌍과는 독립적으로 잔여 변량을 최대로 설명하는 정준 변량함수이다. 이러한 제 2 정준 변량 함수의 정준 가중치를 살펴보면, 예측 변수군의 경우에는 자기조절 및 활용(-1.177)이, 평가변수군의 경우에는 신체적 용모(-.965)가 가중치가 높았으며, 각각의 군내 변량의 비율은 68.2%와 49.0%를 차지하였다. 즉 아동의 정서지능 중 자기조절 및 활용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잘 예측해 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용모를 가장 잘 예측해

< 표 5 > 아동의 정서지능 변인군과 자아존중감 변인군의 정준상관분석

정준변량함수	Canonical R	정준근	비율	고유치	F값	자유도
제 1 정준함수	.441	.194	.829	.241	11.456***	24
제 2 정준함수	.182	.033	.118	.034	3.297***	15
제 3 정준함수	.099	.009	.034	.010	1.908	8
제 4 정준함수	.073	.005	.018	.005	1.767	3

\*\*\* $P < .001$

< 표 6 > 예측변수군과 평가변수군의 정준가중치 및 정준적재치

	제 1 정준변량함수				제 2 정준변량함수			
	W	L	L'	% ΣL'	W	L	L'	% ΣL'
<b>예측변수군</b>								
1.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430	.796	.634	.301	-1.177	-.553	.306	.682
2. 정서인식	.387	.738	.545	.259	.144	.141	.020	.045
3.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518	.862	.743	.353	.937	.351	.123	.273
4. 감정이입	-.172	.429	.184	.087	.054	-.004	.000	.000
정서지능 전체			2.106	1.000			.449	1.000
<b>평가변수군</b>								
1. 학업능력	.260	.687	.472	.199	-.104	-.129	.017	.026
2. 사회적 수용도	.315	.658	.433	.183	.682	.414	.171	.265
3. 운동능력	.078	.369	.136	.057	.071	.103	.011	.017
4. 신체-용모	-.172	.392	.154	.065	-.965	-.562	.316	.490
5. 행동-품행	.548	.830	.689	.291	-.451	-.360	.130	.202
6. 전반적 자아가치감	.285	.696	.484	.204	.502	-.015	.000	.000
자아존중감 전체			2.368	1.000			.645	1.000

준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아동의 타인 조절 및 표현이 아동의 행동·품행을 예측해주며, 이를 제외했을 경우 자기조절 및 활용이 아동의 신체적 용모를 예측해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예측변수군인 아동의 정서지능 변인군이 정준평가변수군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평가변수군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군이 정준에

측변수군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준 상관 즉 교차 상관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 표 7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교차 상관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예측변수는 제 1 정준 상관의 경우 타인조절 및 표현(.380), 자기조절 및 활용(.35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 2 정준상관에서는 자기 조절 및 활용(-.101), 타인조절 및

< 표 7 > 정준 평가 변수군과 정준 예측 변수군간의 교차상관계수

예측변수군	정준평가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평가변수군	정준예측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제1정준	제2정준		제1정준	제2정준
	1.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351		-.101	1. 학업능력
2. 정서인식	.325	.026	2. 사회적 수용도	.290	.076
3.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380	.064	3. 운동능력	.163	.019
4. 감정이입	.189	-.001	4. 신체-용모	.173	-.103
			5. 행동-품행	.366	-.066
			6. 전반적 자아가치감	.307	-.003

< 표 8 >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정준중복지수

변인	Canonical R	R2	중복지수	중복지수비율
예측변수군				
1	.440***	.194	.077	.951
2	.182***	.033	.004	.049
			.081	1.000
평가변수군				
1	.440***	.194	.102	.962
2	.182***	.033	.044	.038
			.106	1.000

\*\*\*P< .001

표현(.0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요인은 제 1 정준상관에서 행동·품행(.366)이었으며, 그 다음이 전반적 자아 가치감(.307), 학업능력(.303)의 순이었다. 제 2 정준상관에서는 신체적 용모(-.103)가 가장 높은 적재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사회적 수용도(.07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아동의 정서지능 변인은 타인조절 및 표현이고, 이러한 정서지능 변인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어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은 행동·품행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 변인군과 종속 변인군간의 공유 변

량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정준중복지수(canonical redundancy index)를 산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 표 8 >과 같다. 즉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이 두 변수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앞의 결과에서 이에 명시화된 사실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두 변수들간의 관계의 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변수군의 제 1 정준함수 중복지수는 .077, 제 2 정준함수 중복지수는 .004로 합계는 .081이 된다. 다시 말해 예측변수군인 아동의 정서지능 변인군은 평가변수군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군을 예측하는데 약 8.1%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최근 정서지능(EQ)이 인간의 성공, 건강, 행복을 예측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어 감성능력 또는 정서지능이란 개념이 교육현장이나 매스컴에서 성행하게 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정서지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점수의 특징을 보면, 정서지능의 네 요인 중에서 '정서인식', '타인조절 및 표현'의 순으로 높게 나

타난 반면, '감정이입'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 및 표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이든 타인의 정서이든 정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이해를 나름대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긍정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능력도 비교적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인식은 개체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감각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정서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정서의 건장한 표현과 조절 및 활용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기분 나쁜 일로 하루를 시작하여 계속 언짢은 기분으로 지내면서도 자신의 현재 느낌이 어떠한고 왜 그런지를 모르면 감정의 해소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자신의 정서적 반응이 언짢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것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조정서(metamood)'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분노, 수치심, 또는 슬픔이다' 라고 인식하는 능력을 일컫는 것으로서 (Gibs, 1996) 특히 정서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경험해 보는 것으로 타인이 느낀 감정이나 기분을 마치 자신이 느낀 것처럼 인식하는 감정이입 즉 공감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요인에 비해 이처럼 감정이입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이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더 성숙한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감정이입이 이타적 행동 및 회생적 행동 등과 함께 친사회적 행동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점과, 또한 현대사회의 아동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자기중심적이며 감정의 순수함보다는 타산적이고 실리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것이 사실임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

다. 또한 감정이입은 상대방을 보았을 때 저절로 내면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반응으로서, 타인조절 및 표현에서 볼 수 있는 보다 자의적이고 그래서 관찰과 경험에 의해 보다 쉽게 학습되고 모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쩌면 성숙에 의존하는 정도가 보다 높은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감정이입이 훈련에 의해 변화될 수 없는 능력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조절 및 활용 점수 역시 그다지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며, 적절히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능력과 노력 또한 부족함을 보여준다. 자기조절과 활용에 비해 타인조절 및 표현은 높은 편인데, 이는 두 요인 소속문항들의 내용을 볼 때, 정서표현과 타인의 정서조절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서 의식적, 의도적 노력으로 수행이 가능할 수도 있는 보다 피상적인 행동들이지만 자기 정서조절은 보다 내면적 이해와 성숙, 그리고 자기통제와 인내를 요하는 행동들로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는 행동들이다. 뿐만 아니라 정서활용은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사고와 보다 성숙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하는 것으로서 더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그 수준이 다소 낮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록 작은 표집의 실험 연구이긴 하나 김현지(1999)의 자료에서도 관찰된다.

한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경우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자존감 하위척도들중 가장 높게 나온 반면, 학업능력과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것들로 나타났다. 즉 평소 자신의 생활방식 및 현재의 자기 자신에 대한 종합적, 총체적 평가인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다른 하위영역들에 비해, 그리고 1~4점의 응답가능 점수범위 (기대평균점수는 2.5)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학업 및 운동관련 자아존중감은 대체로 기대평균치 수준을 별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공부를 포함한 학업 능력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조차도 학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비교적 높고 나름대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리고 한창 운동을 즐기고 활동적이어야 할 초등학교 아동들이 운동에 그다지 자신이 없어 함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운동량의 부족과 적절한 여건 부재로 인한 운동능력 발달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운동이나 운동적 게임과 놀이들을 본인의 희망이나 기대만큼 잘 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기대와 실재간의 괴리 확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자아존중감 전체의 평균은 2.69로서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서지능변인의 요인간 상호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서지능 전체는 자기조절 및 활용과 타인조절 및 표현과 매우 높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인식이나 감정이입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구성은 다르지만 정서지능이 정서조절과 매우 높은 상관(.88)을 보이고, 정서인식과는 .71, 정서활용 및 감정이입과는 모두 .69의 상관을 보인 문용린(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자기조절 및 활용이 타인조절 및 표현과 가장 높은 상호 상관을 보인 것은 단순한 정서인식이나 공감보다는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조절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규제와 배려를 두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는 타인의 정서에 대한 관심과 조절 및 배려가 어느 정도 획득되면서 자기조절 능력이 자라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타인조절 및 표현과 자기조절 및 활용은 둘다 정서인식(.47, .40) 및 감정이입(.47, .45)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을 때 자기표현과 조절 및 활용을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서를 빠르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보다 적절하게 반응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다고 한 Salovey와 Mayer(199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감정도 잘 읽을 수 있으며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는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환자를 감정표현 불능증 환자(dehithymics)라 하는데, 이런 환자는 주변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환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다. 정서적 표현이나 느낌과 같은 것은 말과 행동에 의해 미묘하게 짜여진 옷감과 같은 것으로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 신체 표정이나 자세의 변화, 얼굴 표정, 예절에 따른 몸 자세 등의 미묘한 변화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은 정서지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장현갑, 1996)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공감해주는 감정이입 능력은 살아가면서 여러 장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러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정서인식과 감정이입 간의 상관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정서지능의 기초가 되는 정서인식이 감정이입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며, 따라서 정서 인식 능력이 그대로 공감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다른 변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이입 능력은 지각 또는 인지에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내면의 어떠한 동기(그것이 순수하고 긍정적인 사랑이든 자기 투사이든 간에)라든가 그동안에 형성되어온 개인의 인성 등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배려가 풍부한 환경에서, 또는 그러한 특성이 가치있는 덕목으로 평가받고 요구되는 사회에서 더 일찍 그리고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타인의 정서인식이 단순한 지각으로만 끝나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결론으로 연결되지 않고 공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양육과 지도가 필요하게 된다.

셋째, 자아존중감 변인의 요인간 상호 상관관계에서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자아존중감 전체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단일 하위척도로는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비교적 잘 반영해 주는 하위척도임을 시사해 준다.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특히 신체·용모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박영애(1995)의 연구에서도 발견된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아동기 후기와 사춘기 아동들이 특히 또래와 이성관계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외모를 특히 중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행동·품행 등도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어느 정도는 높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운동능력은 이들에 비해 다소 낮은 상관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척도를 사용한 5년 전의 연구 결과(박영애, 1995)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신체·용모와의 상관관계가 .49에서 .63으로, 행동·품행과의 상관관계가 .36에서 .45로 높아지고, 운동능력과의 상관관계는 .33에서 .27로 내려간 것이 차이점으로 관찰된다.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생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의 이러한 특징은 그동안 아동들이 자기평가에 있어

신체·용모를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시하는 쪽으로 변해왔음을 반영해 줌과 동시에 운동능력은 과거보다는 덜 중요시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척도 문항의 내용을 보면 '운동'의 개념에 종래의 전형적인 운동 종목들 뿐 아니라 신체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놀이와 게임들이 포함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 아동들이 그런 '운동'을 더 잘하고 싶다는 기대는 높아졌을 수 있으나 그 '운동'의 중요성 평가에서는 과거보다 다양화되었을 수가 있어서 운동관련 자아존중감이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가지던 상관관계가 낮아졌을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행동·품행관련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아진 부분은 일견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요즘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실제로 과거에 비해 행동·품행이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행동·품행 관련 자아존중감은 실제로도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특히 행동·품행영역이 도덕적 가치관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다 주관적 판단의 개입소지가 다른 자존감 하위 영역들에 비해 크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관이 더 강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 평가에 후해진 아동들이 보다 높은 점수를 주게 되면서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상관관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는 현상이다.

넷째,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먼저 하위요인들간 다중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인 자기조절 및 활용과 타인조절 및 표현이 자아존중감의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행동·품행과 가장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에 올바른 행동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잘 지키며, 말썽을 잘 부리지 않고 예절바르게 행동하며, 해서 안 되는 줄 아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등의 올바른 행동·품행적

특징들과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고 활용할 줄 알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서로 상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는 억제하고 조절하는 반면,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바꾸려는 노력과 아울러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수용해 주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정서지능 중 이들 두 요인이 자아존중감의 다른 하위 영역보다 특히 행동·품행 요인과 상관성이 있음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아동의 정서지능 총점과 그 다음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인 것은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학업능력이었고 사회적 수용도가 그 다음이었다. 정서지능은 운동능력과는 가장 낮은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하는 아동들이 비교적 활발하고 솔직·단순하며 반응의 즉각성, 또는 순발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긍이 가는 결과이다.

정서인식 능력은 학업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여 인지적 역량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행동·품행과 사회적 수용도 등 나머지 자존감 하위영역들과도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 정서지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임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타인조절 및 표현은 행동·품행 및 사회적 수용도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이 정서지능 요인의 개념이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배려한 자신의 정서표현 및 상대방의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주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비해 자기조절 및 활용은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의 행동이나 반응이기보다는 스스로가 자신을 조절하고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

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기 개인의 행동 특성을 의미하는 행동·품행과의 상관성이 사회적 수용도와 상관보다 높은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이입은 학업능력 및 행동·품행과만 비교적 낮은 상관성을 보였을 뿐이고 사회적 수용도와는 그 절반 수준의 훨씬 더 낮은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감정이입은 정서인식만큼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정서 능력이 아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표현이나 활용보다는 개인의 내면적인 경험으로서 표현이나 행동을 거치지 않고는 상대방에 의해 인지되기 어려운 능력이라서 그럴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자기조절 및 활용보다 타인조절 및 표현과 더 높은 상관성을 보였는데, 비록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자기 스스로의 정서조절 및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타인에 대한 그의 행동과 그것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아동이 평가한 것에 더 기초하고 있는 것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감정이입 능력과 가장 낮은 상관성을 보인 것은 감정이입을 그다지 중요한 능력이나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간의 정준상관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아동의 정서지능 요인은 타인조절 및 표현이고, 아동의 정서지능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은 행동·품행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타인조절 및 표현이 아동의 행동·품행을 가장 잘 예측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타인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동의 행동·품행 관련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

신감과 인내력이 많고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능력이 높다고 밝힌 Rosenberg(1979)의 연구를 비롯하여, 긍정적인 정서상태와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전반적 자아존중감의 정서적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한 Pelham과 Swann(1989)의 연구,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즐거움, 수용 등의 긍정적인 정서와 상관성이 높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놀라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상관성이 높음을 밝힌 김향희(1996)의 연구,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여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위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소속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여 성취감이 높으며 자기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안다고 밝힌 Reasoner(1982)의 주장(한미라, 1996, 재인용)과 일맥상통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정서지능 총점은 중간점수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정서인식(자기와 타인)과 타인조절 및 표현 수준은 평균보다 높고 자기조절 및 활용과 감정이입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이론적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자기정서 조절 능력과 정서의 생산적 창의적 활용 능력 및 공감능력의 함양을 위한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자아존중감 측정치에서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비교적 높고, 그 다음이 사회적 수용도 지각이며, 학업능력과 운동능력이 가장 낮다. 평균수준보다 높은 자아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는 계속 유지, 발달할 수 있도록 도우되, 학업과 운동능력 자존감 및 역시 낮은편인 행동·품행 자존감은 그 원인규명 뿐 아니라 그들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교육제도적, 사회문화적 및 양육 환경의 조건과 특징들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지능은 전반적으로 하위요인들간 상관성이 매우 유의하면서 비교적 고르게 높아 그중 어느 한 능력의 강화는 다른 능력의 신장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 그러나 각 하위영역의 능력은 다른 하위영역 능력의 확대를 위한 필요조건일 수도 있고 그에 의존하는 것일 수도 있어 상관관계의 본질을 보다 충실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관계에서 신체·용모 자존감이 두드러지게 높음은 발달적 해석이 어느정도는 가능하지만 주목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또한 특정 자존감 영역 점수의 증감이나 영역간 상관관계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은 아주 높지는 않으나 확실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하위요인들간 다중상호상관의 특징들을 충분히 파악하여 지도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을 비교적 잘 예측하는 정서지능요인은 타인조절 및 표현, 자기조절 및 활용, 그리고 정서인식 등이고, 아동의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 그리고 학업능력 등의 자아존중감 점수들이 정서지능 요인들에 의해 잘 설명된다.

이와 같은 결론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추가하고자 한다.

21세기를 계획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그 세기의 주역이 될 아동에게 적합한 정서지능 즉 EQ와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진정한 아동의 행복과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급적 어릴 때부터 정서지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감성교육 및 자아존중감 증진프로그램들을 개발, 보급해야 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민 전체의 인식 전환 및 사회제도적 차원에서의 실질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의 자



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과 감정이입 능력이 비교적 낮고, 자아존중감 또한 전반적으로 높지 않으며, 특히 학업능력 측면의 자아존중감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데, 이는 우리의 학교교육이나 사회문화가 아직까지도 지적 능력 또는 IQ에 대부분 매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입시 위주의 교육, 인성 중심보다는 지식 중심 교육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은 욕구나 기대에 대한 성공의 비율 (James, 1963, 박영애, 1995)이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에 의거해서 볼 때, 학업능력 관련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실제 수행 또는 학업 성취가 낮아서 일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이 높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정서기술과 마찬가지로 감정이입은 선천적인 특성이지만 경험에 의해 신장될 수도 있는 능력이라는 주장(Gibs, 1996)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며,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바꾸는 자신의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 공감해 줄 수 있는 즉 감정이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개인적으로 정서지능 요인중 발달이 처지거나 취약한 영역에 보다 역점을 둘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활용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상 실제 생활에서 두드러진 성공을 한 사람들은 말 잘하고, 계산 잘하는 인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보다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줄 알고, 자기가 관여하는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며, 절제있는 행동을 하고, 이타적이며 동정심과 관용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EQ가 IQ보다 생활 전반의 적응이나 성취면에서 보다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점(Shoda, Mitchel, & Pearke,

1990), IQ는 출세와 성공의 20%를 설명하고 EQ가 80%를 설명한다고 주장하는 Goleman(1995)의 입장,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조절을 잘 하는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적합하고 비공격적인 방법으로 행동하여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잘 한다고 밝힌 연구들(Casey & Schloster, 1994; Eisenberg, Fabes & Losoya, 1997; Goleman, 1995; Losoya, 1994)에 근거해서 볼 때, 앞으로의 인재 육성과 아동교육은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보다 역점을 두고 연구와 실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IQ가 인생의 성공과 명성, 또는 부와 행복 등을 가져다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교육이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학업성적과 대학입시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지적 능력의 개발과 신장에 더욱 몰두하고 집착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들의 잠재적 영향 및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서지능 척도가 아직은 수정·보완과 철저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한 관련 이론들의 개념모형 역시 아직까지 학계에서 합의되지 못한 채 형성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나친 분석이나 결론 도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서지능의 요인 수 및 요인 명명 등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아직은 나름대로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최대한 보완하여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도우는 데 보다 직접적·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연구가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윤정(1997). 정서지능의 발달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1987). 부모의 자아평가·자아존중·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여가(1996).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희(199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 및 정서간의 상관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지(1999). 아동의 정서발달 프로그램의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용린(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자료집. 서울 :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서울대 교육연구소
- 문용린(1997). 종합진로·진로적성검사, 서울 : 대교출판부.
- 문용린, 곽윤정, 이강주(1999). 정서지능 연구의 성과와 전망. 서울대 교육연구소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화희(1989).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영(1996). 어머니의 언어상호작용 유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1986).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재(199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영(1993)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이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현갑(1996). "정서지능이란 무엇인가?". 정서지능/EQ ; 인간능력 이해의 새로운 관점. '96년도 정서지능 연구회 세미나 자료집. 영남대학교 정서지능연구회
- 한미라(1996).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sey, R. J., & Schlosser, S.(1994). Emotional response to peer praiser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a diagnosed externalizing disorder. *Merrill-Palmer Quarterly*, 40, pp. 60-81.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 H. Freeman.
- Eaton, M.(1997). Positive discipline : Fostering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3(6), 43-46.
- Eisenberg, N., Fabes, R. A., & Losoya, S.(1997). Emotional Responding : Regulation, Soci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In P. Salovey & D. J. Sluyter(Ed.),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sic Books.
- Gibs, N.(1996). "EQ Factor".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자료집. 서울 :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 연구소/서울대 교육연구소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esteem.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Sear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275-385). New

- York : Wiley.
-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Denver, CO : University of Denver.
- James, W.(1963).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Losoya, S. H.(1994). The pattern of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in boys with and without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ta. University of Oregon, U. S. A.
- Manning, P. C.(1989). Family functioning, sibling relationships, and a child's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 Mayer, J. D., Salovey, P.(1996). EQ : 감성지능학 습법, 홍명희 (역). 서울 : 해냄출판사.
- Pelham, B. W., & Swann, W. B.(1989). From self-concept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pp. 672-680.
- Rosenberg(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1975).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 9(3). pp. 185-221.
- Salovey, P., & Sluyter, D. J.(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Educational Implications*. New York : Basic Books, Harp Collins Pub.
- Shoda, Y., Mischel, W., & Peake, P. K.(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pp. 978-986.